

“선거구 획정 신속하게 해야”

“명장 선정지원 취지 공감 절차 이행 철저히 해달라”

성경찬 도의원, 국회 정책토론회서 “지역대표성 고려 지방의원 정수 결정” 주장

정개특위에서 조속하게 선거구획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방선거의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하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 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성경찬 전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신속한 선거구 획정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주장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2014헌마80)에 따라, 2022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인구비례가 4:1에서 3:1로 변경되고 지역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까지도 더욱 약화돼 지역 현안 해결이나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지는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실제 현재의 결정대로라면 고창군의 선거구 1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지역의 정치적 역량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경찬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

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의원의 정수를 스스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11월 30일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운동경계에서 시합을 할 경기장이 결정되지 않아 선수 본인들이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경기를 지켜보고 판정을 내리는 유권자들 또한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거대양당 의석 독식 위한 무늬만 중선거구제 반대”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1일 전북도의회에서 ‘민주적 선거구 실시 촉구 및 기초의원 선거공동대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1일 전북도의회에서 ‘민주적 선거구 실시 촉구 및 기초의원 선거공동대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1일 2022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3일차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실국은 일자리경제본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복지여성보건국, 혁신성장산업국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일자리경제본부의 전북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전북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 계속사업을 살펴면서, 연도별 집행률, 여건 변화 등 설명을 요구하며 “신규사업인 피앤피 IP창업 벤처 펀드 조성지원 사업을 청취하고,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요긴하게 투자돼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전북도 명장 선정지원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선정심사위원회

활동내용과 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이행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규사업인 갑질피해사업자 지원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 갑질사업자 피해사태 현황을 점검하며, 지원책인 관련 조례가 올 8월에 제정된 것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기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신규사업인 전북도 민주시민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북도민의 민주시민 의식이 부족한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인지 되물으며, 사업추진 배경과 수행주체, 대상자 및 교육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노령층 넓은 광장을 놔두고, 청사개청 16년만에 도청사 옥상 정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유호상 기자

전북선관위,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모집

6일부터 14일까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하는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업무 등을 보조할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 등은 2022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모집 세부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기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 일부 현직서 선발”

“정부·공공기관·기업체 재택근무 권장”

박완주 민주 정책위의장, 소방공무원법 개정법안 발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 경합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해 소방행진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

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비간부의 임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 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경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호상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최근 일주일 사이 일선 병원에서 환자 폭증과 병상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호소마저 나오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나타나는 등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지난 11월 방역 당국은 국내 의료체계 상 하루 확진자 5천명이 한계로, 만약 1만명에 달할 경우 의료체계 포화로 위드 코로나 중단(비상조치)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재택치료 대상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물 것이 왔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신규 확진자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방역 당국은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특별방역대책 시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채 그저 대국민 백신 접종만 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지금 상황은 백신접종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며 “화상회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여러 방안 중에서 우선 재택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정부가 재택근무 활성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체육시설 실태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 의원)가 1일 전주 덕진체련공원과 완산생활체육공원, 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이날 위원회는 덕진체련공원과 완산생활체육공원 현장에서 축구와 테니스장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문제점과 시설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주시 관계자로부터 노후 관망석 교체공사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은 “이번 현



장 점검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점검해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